

광주지역 창업 허브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개관

호남권 최대 규모 ‘스테이지’
‘광주역 창업밸리’ 첫 인프라
광주형 창업생태계 핵심 거점
창업기업·투자·지원기관 입주

호남권 최대 규모로 조성하는 ‘광주역 창업밸리’의 첫 인프라인 ‘빛고을창업스테이션(STA·G, 스테이지)’이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광주광역시시는 19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수화물 주차장 부지에 건립한 ‘스테이지’를 정식 개관했다.

스테이지는 ‘STARTUP STATION GWANGJU’의 약자로, ‘창업기업이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라는 의미로, 창업기업이 광주에서 성장해 글로벌로 도약한다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다.

이날 개관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주영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고병일 광주은행장, 스테이지에 입주한 스타트업, 투자자, 창업지원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G-Startup 2030, 광주야 날자’를 주제로 ‘2030 대한민국 창업수도 광주’의 청사진 발표, 광주시·신용보증기금·광주은행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1000억원 협약자금 MOU’ 체결, 중앙부처와 창업지원기관, 투자자 등 40여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19일 북구 빛고을 창업스테이션에서 열린 ‘스테이지(STA·G) 개관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기관·단체 간 파트너십 형성·상호지원을 다짐하는 협력 세리머니 등으로 진행됐다.

또 투자유치 IR(기업설명회), 스테이지 홍보 부스, 광주역 인근 주민과 창업가들이 참여한 플라마켓 등도 운영됐다.

스테이지는 이곳에 창업기업, 투자전문

기관(VC 벤처캐피탈, AC 액셀러레이터), 창업 지원기관 등이 함께 입주하는 통합형 창업플랫폼이다. 총사업비 350억원을 들여 부지 5503㎡에 지상 5층, 연면적 8950㎡ 규모의 창업지원시설로 지난 2월 준공됐다.

초기 창업기업들에게 기업친화적 입주

공간과 함께 기업 성장주기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VC, AC도 함께 입주하는 만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에는 창업기업 사무공간 41실과 투자기관 전용공간 5실 외에도 코워킹스

페이스, 회의실, 오픈라운지, 옥상정원 등 창업 친화적 공유 공간이 갖춰져 입주자 간 협업과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총 30개의 유망 기업과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30여개 투자기관도 상주해 투자와 창업을 지원,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창업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광주시는 스테이지를 중심으로 △전용 펀드 운영 △빛고을 투자챌린지 개최 △대·중견기업 공동 협업모델 개발 △글로벌 진출 △엑셀러레이팅 지원 등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9개 민간 투자파트너사를 선정해 맞춤형 액셀러레이팅과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민선 8기 광주시는 5000억 창업펀드 목표를 조기 달성해 지금까지 6236억원을 조성했고, 이를 넘어 1조원 펀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또 81개 기업에 광주 곳곳을 빌려주는 실증지원사업을 실시했고, 10개의 광주 유니콘 기업들을 키워냈다”면서 “앞으로 광주역 창업밸리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and 인재 양성, 실증, 글로벌 진출까지 스타트업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공개강좌

정신건강 전문의 초청 특강
내달 2·3·8·9일 네차례 실시

광주광역시시는 오는 7월 총 네차례 디지털 환경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알아보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대시민 공개강좌’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광주시와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동·남·북·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강좌 주제는 ‘디지털 시대, 우리 아이의 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로,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디지털 기기 과다 사용이 아동의 뇌 발달과 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다룬다.

미디어 과다 노출로 주의력 저하, 언어·사회성 발달 지연,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을 겪는 아동·청소년과 부모에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신건강 보호 방법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광주광역시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지난 18일 ‘2025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 총 5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각 구별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차량 영치시스템 등 첨단영치장비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습 체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이날 집중단속을 통해 총 5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100여만원을 현장 징수했다.

다.

강좌는 오는 7월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열린다. △7월2일 오전 10~12시 박순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남구종합청사 보건교육실(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7월3일 오전 10~12시 김하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일곡도서관 강당(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7월8일 오전 10~12시 이지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남부대학교 산학관 세미나실(광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7월9일 오후 2시20분~3시20분 김하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학운초등학교(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강좌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광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 강좌는 홍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고,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 강좌는 홍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나 누리집 ‘교육/행사 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 강좌는 신청이 마감됐다.

정상아 기자

전남 10대 브랜드쌀, 中 박람회서 ‘인기몰이’

광저우 ‘건강산업 박람회’ 참가
수출협약 3건·상담 15건 성과

전라남도는 중국 광저우 캔톤페어 전시장에서 열린 ‘국제 건강산업 박람회’에 참가해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을 집중 홍보하고 수출 협력 마련을 위한 다양한 상담과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까지 3일간 열린 국제 건강산업 박람회는 전 세계 건강 관련 1천여 식품 업체가 참여하고, 7만여 명이 방문한 아시아 최대 규모 전시회다. 고향 킨텍스 전시 공간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전남도는 농협전남지역본부 2025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된 지역 RPC와 함께 참가해 국내의 바이어를 대상으로 프리미엄 전남쌀의 우수성과 수출 가능성을 알렸다. 그 결과 중국만리통공 급망서비스유한회사, 광동수출입상회, 오대주쌀 수출입업체협회 등 현지 기관·유통기업과 고품질쌀 수출 업무협약(MOU) 3건을 체결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아오라(Aura) 쌀 수입업체를 비롯한 14개 사와 수출상담을 해 기능성쌀, 유기농쌀, 진공포장 방식 등 다양한 수출 조건을 논의했다.

특히 천진중 중국만리통공급망서비스 유한공사 회장은 “당뇨에 좋은 기능성 쌀

이라면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에도 수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전남쌀의 프리미엄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홍보관에서는 전남 10대 브랜드 쌀 시식과 전시를 통해 관람객과 바이어의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중국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를 위한 수출 물류 전략도 논의됐다.

전남도는 또 중국 월마트, 7FRESH 등 대형 유통업체를 방문해 진공포장 형태의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고온다습한 기후에 적합한 포장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를 반영, 2026년부터 RPC에 진공포장시설을 확충하는 신규사업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민간정원·수목원서 ‘수국 축제’

8월까지 고흥 씩섬 등 7곳

전라남도는 오는 8월 말까지 민간 정원과 수목원에서 수국 축제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수국 축제는 민간정원 제1호인 고흥 씩섬을 비롯해 담양 죽화경, 고흥 장수호 힐링정원, 보성 성림정원, 장흥 월넛치유평원, 해남 비원, 해남 포레스트 수목원 등 7곳에서 열린다.

수국은 물을 좋아하는 여름꽃으로 전남은 햇빛, 물, 바람 등 노지에서 수국이 생육하기 좋은 조건을 갖췄다.

흰색, 분홍색, 파란색 등 형형색색의 화려한 꽃을 피워 장관을 이룬다.



고흥 씩섬은 활짝 핀 수국과 푸른 다도해가 어우러져 섬 전체가 한 폭의 수채화로 변신한다.

담양 죽화경은 2만㎡(6000평)에 20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이 어우러진 정원으로 흰 꽃이 가득한 수국을 만날 수 있다.

고흥 장수호 힐링정원은 2005년부터 3

만2000㎡(1만 평)에 1천만 송이 꽃과 나무를 심어 가꿨다.

보성 성림정원은 4만 그루의 수국이 편백숲과 어우러져 매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장흥 월넛치유평원에서는 8월 15일까지 ‘제5회 수국 꽃잔치 그리고 귀족호두 특별전’이 열린다.

해남 비원은 1만㎡(3000평)에 자연 지형을 살린 채 7000여 종의 식물과 수국이 아름답게 어우러진다.

전남의 원조 수국정원인 해남 포레스트 수목원은 250종, 8000여 그루의 수국을 자랑한다.

이밖에 여수 꿈꾸는 정원, 장흥 하늘빛 수목원 정원, 장성 무릉도원에서도 형형색색의 수국정원을 만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

정상아 기자